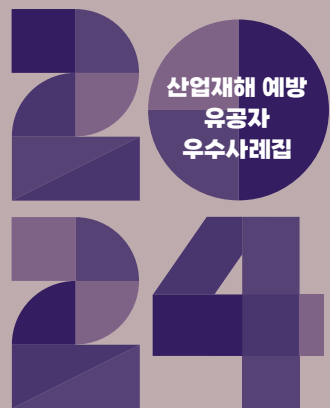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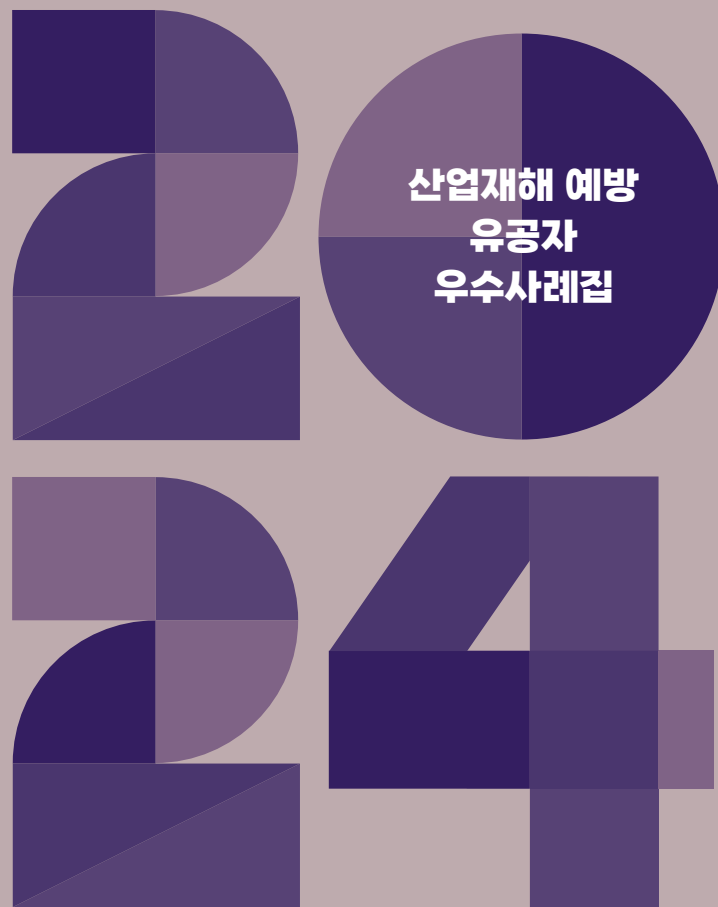
안전한
일터
행복한
삶터

2024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우수사례집

● 산업훈장

● 근정포장 / 산업포장

● 대통령표창



안전한
일터
행복한
삶터

● 국무총리표창

● 고용노동부장관표창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행복한
삶터**

목차 contents

1 산업 훈장



2 근정 포장



- 06 경영의 제1원칙은 안전!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도 안전!
동탑훈장 | 삼성에스디아이(주) 울산사업장 정훈 사업장장
- 08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목표는 무재해로 준공하는 것”
철탑훈장 | 두산에너지빌리티(주) 삼척화력발전소1,2호기 EPC 건설공사 김선겸 부장
- 10 전국 레미콘 공장에 안전 책자 배포...업계 뜨거운 환영
석탑훈장 | 유진기업(주) 김진용 부장
- 14 “탄생각을 해도 사고 안 나야 정상, 산재도 스마트시스템으로 예방해야”
근정포장 | 가천대학교 강성규 대학원장
- 16 무재해 환경 만드는 첨단 기술 도입을 꿈꾼다
산업포장 | 한국동서발전(주) 이정우 처장
- 18 “서비스업 특화 산재 예방 프로그램, 동종 업체 함께할 선례 되길”
산업포장 |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한정희 점장

3 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 표창



5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1 대기업 부럽지 않은 꼼꼼한 안전보건관리
 (주)백학음료 장학영 대표이사
- 22 신념과 책임감 갖고 노력할 때 중대재해 막을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주) 공평15, 16지구 재개발신축현장 최철 책임매니저
- 23 “격동의 시대 맞은 산업안전...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겠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함병호 교수
- 24 “안전수칙 단순 암기는 그만...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업장 만들겠다”
 (주)티에이치엔 채승훈 대표이사
- 25 산업안전 정책에 발맞추며 정부에 현장 목소리 전했다
 삼성전기(주) 세종사업장 구명찬 프로
- 27 근로자 참여형 시스템 주도...안전관리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다
 HL만도(주) 원주공장 김홍선 상무보
- 28 IT 활용한 건설현장의 위험성 예측 통했다
 삼성물산(주) 반포3지구 재건축현장 김도석 부장
- 29 현장에 답이 있다! 발품 팔아 근로 현장 목소리 들었다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송민숙 선임차장
- 30 “작지만 큰 기업! 과감하게 안전에 투자했다”
 철한정화기업(주) 유형균 전무
- 31 안전의 선순환을 위한 첫걸음...소통하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롯데웰푸드 주식회사 조윤근 안전기획 매니저
- 32 보건관리 28년, 전국 공항 근로자의 건강을 지킨다!
 한국공항공사 김경숙 과장
- 33 “안전하게 일하게 하는 것이 복지...위험 원천 차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최태은 팀장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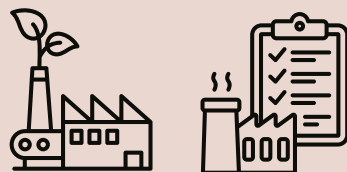
1

산업 훈장



04

05



배려가 찾아주는 안전할 권리

- 06 경영의 제1원칙은 안전!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도 안전!
동탑훈장 | 삼성에스디아이(주) 울산사업장 정훈 사업장장
- 08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목표는 무재해로 준공하는 것”
철탑훈장 | 두산에너지빌리티(주) 삼척화력발전소1,2호기 EPC 건설공사 김선겸 부장
- 10 전국 레미콘 공장에 안전 책자 배포...업계 뜨거운 환영
석탑훈장 | 유진기업(주) 김진용 부장



경영의 제1원칙은 안전!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도 안전!

● 삼성에스디아이(주)
울산사업장
정 훈 사업장장

“앞으로도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겠다. 임직원이 건강하게 일하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일터를 만들겠다.”



‘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다.’

삼성에스디아이 울산사업장의 회의는 늘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다.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은 조직의 의지가 담긴 구호이다. 경영의 원칙은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다. 파트너사 직원을 포함해 약 2,700명이 일하는 울산사업장에선 지난해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안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려 달성한 성과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삼성에스디아이 정훈 울산사업장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안전관리에 99.3억원 투자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에스디아이 울산사업장에는 갖가지 위험 요인이 있다. 우선 설비를 증설·유지·보수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고소작업, 중량물 작업, 화기 작업 등 위험을 동반한 작업이 늘 이뤄진다. 대형 차량과 지게차 등 중장비에 의한 사고 위험도 존재한다.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울산사업장은 지난해 99억 3,000만 원을 안전관리에 투자했다. VR안전체험교육장과 CPR체험장을 구축해 산재 예방 실천 능력을 향상시켰다.

로봇 스캐너형 센서 및 컨베이어 안전커버를 강화해 ‘협착 위험점 Zero화’ 목표를 달성했다. 자동제동, 경보 등 지게차 AI 시스템도 적용했다. 또 근로자들이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근로자들이 직접 잠재재해 요소를 발굴하게 하고, 개선안에 대해 즉시 조치한 뒤 위험성평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현장 위험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잠재재해 요소 발굴 우수사례를 시상해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동반자인 협력업체와 함께 안전하게!

협력업체도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 사업장장은 “협력사들은 규모가 작다 보니 체계적으로 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매월 협력업체의 애로를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협력사 안전관리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를 연 2회 시상했다. 위험성평가 등록,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할 수 있는 협력사 안전시스템(P-EHS, 앱)도 구축했다. 23년 협력사 3곳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2년 협력사 24곳이 참여한 공생협력 프로그램에서는 A등급을 획득했다.

노사와 협력사가 합심해 안전보건관리에 노력한 결과, 울산사업장은 지난해 무재해를 기록했다. 정 사업장장은 “3년간 매주 여는 안전환경회의를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주 최소 3번 현장에 직접 나가 안전점검을 하고, 근로자들을 인터뷰하며 소통한 것이 쌓여 가능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큰 성과는 우리 구성원들의 안전 의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며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 “함께 일하는 임직원과 파트너사 여러분 전체가 잘 실행해주셔서 분에 넘치는 상을 받았다”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안전이 최우선...무재해 이어가는 게 목표”

울산사업장에는 신형 배터리 및 양극재 공장이 추가로 건설된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규모는 2025년까지 최대 2배까지 커질 예정이다. 사업장이 확장되면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정훈 사업장장은 “무재해를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에 두고 초심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저희 임직원이 건강하게 일하고, 가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목표는 무재해로 준공하는 것”

●

두산에너지빌리티(주)
삼척화력발전소 1, 2호기 EPC 건설공사
김선겸 부장

“모두의 노고를 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마지막 화력발전소 건설에
무재해 기록을 남기고 싶다.”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대에 건설 중인 삼척화력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다. 국내에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이기도 하다. 삼척화력발전소 1, 2호기 EPC 건설공사를 책임지는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김선겸 부장은 이런 특별한 때문에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1998년 입사 이래 ‘화력발전 건설 외길’을 걸어온 그이기에 이번 현장은 더욱 의미가 있다.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준공까지 무재해로 현장을 운영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고난도의 발전소 건설현장, 긴장의 끈 놓을 수 없다

모든 현장은 나름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발전소 건설현장은 특히 복잡하다. 공장지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고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이를테면 보일러 설비에서는 고온·고압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터빈을 돌려 만드는 전기로 인한 위험도 상존한다. 각종 화학물질 등 유해 요인 역시 한둘이 아니다. 일일 최대 3,500명이 동시에 일했을 정도로 현장 근로자 수도 압도적으로 많다.

김 부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만 하는 환경인 셈이다. 자연스레 그의 현장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산재 예방 활동이 이뤄졌다. 그는 근로자 개개인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황금 헬멧’ 수여... 근로자에게 안전 동기 부여

일례로 안전보건총괄 책임자가 순회 점검을 할 때면 근로자 인터뷰를 하게 했다.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60회의 인터뷰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를 근로자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 결과는 ‘안전지킴이’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등록해 즉시 공유토록 했다.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 실행력을 향상시켰다. 단순히 안전 위험 사항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발견한 근로자가 실시간으로 신고·개선할 수 있는 ‘두드림’ 시스템도 운영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리더 지정 운영제’를 도입했고 총 252명이 리더로 활동했다. SNS를 통해 건설업 중대재해 및 사고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런 제도는 근로자들이 직접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매달 우수 근로자에게는 ‘골든 세이프티 헬멧(Golden Safety Helmet)’을 수여했다. 2022~2023년에 364명이 ‘황금 헬멧’을 받았는데, 소수에게 주어지는 이 상은 근로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톡톡히 했다. 김 부장은 “스스로 안전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절로 안전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돌아봤다.

하도급 체계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를 통해 2022~2023년 총 147개사의 안전 기준을 평가하고, 12개사에 시스템 컨설팅을 지원했다. 덕분에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안전보건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이뤄졌다. 4억 6,500만원을 투입해 3D 안전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육장과 밀폐·추락 등 체험 교육장을 조성했다. 또 7억 5,000만원을 들여 대형 크레인 등을 장비 전문가가 밀착 관리하게 했다. 간호사도 채용하고 응급 차량도 운영했다.

또 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이동식 크레인·굴착기·고소작업대 등 6대 건설장비에 QR을 부착해 작업 전 필수 안전조치 점검 등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준공까지 무재해 목표...노력 평가받아 감사”

김 부장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중대재해 없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안전관리는 특정 조직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관심과 노고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은 우리 모두의 노고를 평가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마지막 화력발전소 건설에 무재해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 레미콘 공장에 안전 책자 배포... 업계 뜨거운 환영

유진기업(주)
김진용 부장

“과분한 상을 받았다.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유진기업 안전개선
팀원 모두 함께해 낸 일이다.
감사한 마음뿐이다.”



1954년 설립된 유진기업은 기초 건설소재를 생산·유통하는 기업이다. 철근과 강관류, 석고보드, 단열재 등 각종 건설소재를 취급하며 이를 건설현장 곳곳으로 배송한다. 건설소재 중에서도 유진기업의 대표 제품은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RMC)이다.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와 골재를 정확하게 배합해 전용 트럭으로 건설현장까지 운반한다. 1993년 입사한 김진용 부장은 31년간 레미콘 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 초년 시절 품질관리 분야에서 일했고 이후 레미콘 공장장을 거쳐 2022년부터 안전개선팀을 이끌고 있다.

전국 1,080개 레미콘 공장 안전지킴이

사고 위험이 많은 건설현장과 밀접한 업종 종사자라 안전은 늘 예민한 사항이었다. 특히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은 더욱 관심을 쏟는 분야로 부상했다. 중요한 시점에 안전을 책임지게 된 김 부장은 회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는 힘썼다. 협력사, 동종업종 사업장을 위해서도 뛰었다. 김 부장은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안전 노하우를 담은 책자를 만들어 전국 레미콘 사업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콘을 운반하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레미콘의 상태가 변하기 전 전달해야 하므로 공장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유통할 수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전국엔 약 1,080개의 레미콘 공장이 산재해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 레미콘 업체 대표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다. 당시 여러 기관에서 만든 산업 전반에 대한 안전 정보는 있지만 대부분 일반론으로 매우 포괄적인 데다 자료도 방대했다. 이 때문에 김 부장이 이끄는

안전개선팀은 레미콘 사업현장을 위한 맞춤 가이드를 만들었다. 『안전보건관리 구축 매뉴얼』, 『안전보건 점검 가이드』 등이다. 레미콘을 만들어 운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이를 막기 위한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안전 가이드 제작해 무료 배포

김 부장은 실용적인 레미콘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레미콘 업계의 공통 과제라고 봤다. 안전관리 책자 559권을 전국 레미콘 공장에 무료로 배포한 이유이다. 매뉴얼을 받아본 현장의 반응은 말 그대로 뜨거웠다. 김 부장은 “레미콘 사업장 대표들이 ‘꼭 필요했던 정보’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겼다”고 전했다. 유진기업은 업계에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전하는 ‘안전보건 뉴스레터’도 만들고 있다. 레미콘 업계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공유한다. 지난해는 뉴스레터 45회를 발송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진기업이 소유한 옥외 전광판에 고용노동부 안전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송출하자는 아이디어도 대내외적으로 칭찬받은 활동이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안전개선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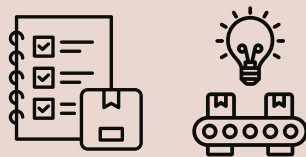
협력업체와 안전협약 체결해 이행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믹서트럭 운송사업자와 안전협약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었다. 트럭 운송사업자들의 휴게 공간도 유진기업 23개 사업장에 설치했다. 의견 청취도 안전개선팀의 중요한 업무다. 현장 근로자는 유진기업 29개 전 사업장에 설치된 안전 제안함을 통해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분기마다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 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바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유해·위험 요인 291건을 개선했다. 김 부장은 “개선할 점은 나오기 마련”이라며 “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책임자와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모두 인식을 함께할 때 안전한 현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더욱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

근정/산업 포장 🏆



기본의 실행이 만드는 안전 일터

- 14 “탄생각을 해도 사고 안 나야 정상, 산재도 스마트시스템으로 예방해야”
근정포장 | 가천대학교 강성규 대학원장
- 16 무재해 환경 만드는 첨단 기술 도입을 꿈꾼다
산업포장 | 한국동서발전(주) 이정우 처장
- 18 “서비스업 특화 산재 예방 프로그램, 동종 업체 함께할 선례 되길”
산업포장 |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한정희 점장



“탄생각을 해도 사고 안 나야 정상 산재도 스마트시스템으로 예방해야”

가천대학교
강성규 대학원장

“30년간 서서히 변화를 이끌면서
한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천대학교 강성규 대학원장은 우리나라 직업병 연구의 산증인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직업병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물론 산업보건 관련 국제학회의 수장으로서도 활약하고 있다. 또 가천대 길병원 국민검진센터 소장을 맡아 특수건강 진단,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 기관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 현 정부 첫 노사정 합의 이끌어

2023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 보상과 산재 예방으로 분리하고, 중대재해 사고 원인 조사 기능의 체계와 기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에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강 대학원장은 합의 도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를 맡아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설정에 기여했다. 그가 핵심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였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산업보건 정책 마련해야”

강 대학원장의 다음 목표는 뭘까. 뜻밖에도 “후배들에게 맡겨두고 싶다”는 답이 돌아왔다. 후진국에서 태어나 ‘하면 된다’ 식으로 일해 온 기성세대보다 선진국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더 뛰어난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산업보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올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그는 수상 소감 대신 주변에 고마움을 전했다. “30년간 도움을 준 많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 덕에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한 분야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분야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지원. 이는 산재가 발생하면 개별 사업장이 그때그때 책임을 지는 것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안전설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산재가 발생하면 흔히 근로자의 실수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잘못된 거죠. 애초 작업자가 다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잠깐 탄생각을 했다고 죽거나 다치는 게 당연한가요? 안전모 쓰고 안전 벨트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산재 예방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 문제와 노사 문제의 분리다. 안전 문제가 생겨도 임협이나 단협에 부딪혀 개선이 더뎠는지 않도록 노사 합의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고 국제학술단체 수장으로 활약

강 대학원장은 2022년 2월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국제산업보건 학회(ICOH) 제16대 회장을 맡았다. ICOH는 전 세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와 교육 활동 등을 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최고의 국제학술단체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산재 예방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전문적인 조언을 하기도 한다.

2027년까지 연임이 확정된 그는 국제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ILO 총회에서 이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4년 4월 94개국 1,800여 전문가들이 참여한 학회에서 중저소득 국가의 산업보건 안전 향상을 위한 ‘마르케시 선언’을 채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근로자 건강 보호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무재해 환경 만드는 첨단 기술 도입을 꿈꾼다

● 한국동서발전(주)
이정우 처장

“현장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아 기쁘다.
경영진과 동료 직원 등
도와주신 분들 덕에 이런 영광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32년간 발전설비 관리부터 민간투자사업까지 다양한 업무를 섭렵한 한국동서발전 이정우 처장이 특히 애착을 갖는 분야는 안전 및 재난 관리다. 회사 생활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여년을 현장의 안녕을 위해 뛰어 왔다. 이 처장이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점은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는 일이다. 안전사고 대부분이 불안정한 행동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봉쇄하는 데 힘썼다.



특수고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업무 환경 개선

동서발전은 현재 충북 음성에서 신규 복합건설 공사를, 울산 등에서 대규모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환경설비 개선 공사, 저탄장 옥내화 공사,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사도 시행 중이다. 최근 이런 현장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투입된다. 각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안전과 직결된다. 이 처장은 외국인 고용 확대에 맞춰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현장의 안전표지를 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바꿨다.

65세 이상 잠수·밀폐 작업자, 유해물질 취급자 등 취약 단기

근로자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함께 작업하는 이들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관리하면서 사고 가능성과 불상사를 최대한 차단한다. 이 처장은 “안전은 사랑이다”라고 말한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다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면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늘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제 개최

안전 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안전문화 확산은 구성원 전체가 하나처럼 노력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필수 안전수칙이 당연한 생활습관처럼 몸에 배게 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동서발전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안전 ABC(Always Be Careful) 룰’과 ‘3-스톱(Stop) 3-고(Go)’ 운동을 전개해 왔다. 작업하면서 감독원과 작업자, 운전원 등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수칙과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실천 수칙을 매일 강조한다. 이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사를 포함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다 함께! 안전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의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지난해 우수사업장에 선정됐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문화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도 수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회사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한 일도 이 처장이 보람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TF 활동을 통해 개선 과제 31건을 수립하고 이행했다. TF는 중대재해 관련 대비책으로 법적 의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했고, 회사는 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 중대재해예방부를 출범시켰다.

협력사를 위한 안전 상생 프로그램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점도 귀감이 된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해 총 35개 협력사에 3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협력사가 안전을 지키는 일을 번거롭게 느끼지 않도록 안전조끼, 사다리 등 고가의 스마트 안전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여력이 없는 근로자 50인 미만 협력사에는 안전 관련 인건비를 지원한다. 일부엔 근로자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협력사 안전보건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함께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작업전안전회의(TBM) 운영기준을 바꿨다. 이렇게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을 위해 노력한 덕에 2021년, 2022년 전 사업장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 처장은 앞으로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식별하는 데 시를 활용하는 등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재해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첨단기술을 적극 적용해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특화 산재 예방 프로그램, 동종 업체 함께할 선례 되길”

● 롯데쇼핑(주)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한정희 점장

“저는 실행했을 뿐, 뜻을 함께하고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리더가 되고 싶다.”



롯데쇼핑은 국내 대표 유통업체로, 전국에서 32개 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과 달리 산업 재해의 위험이 덜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정서적 질환에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다양한 고객을 직접 상대하면서 이른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감정노동 많은 직원들 정서적 재해 예방 나서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한정희 점장은 이러한 특수성을 포착, 서비스업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 사업을 펼쳐 왔다. 그는 고객과 접점이 많은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리적 어려움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고려, 소소하지만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

한 점장은 원예 치료, 쿠키 교실, 요가나 발레 강습 등 백화점 내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서적 피로를 해소하는 데 다양한 신체 활동이나 취미 강습 참여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한 점장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직원이 수강할 경우 비용의 30%를 회사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걷기왕 대회를 열어 포상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 의무실에 심리상담사를 상주시켜 간단한 상처 치료나 비상약을 받으러 오는 직원이라도 언제든지 심리상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점장은 안전보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았다. 책임자로서 거의 모든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홍보 동영상에 최다 출연하고, 걷기왕 대회와 비만클리닉 행사에도 빠짐없이 나섰다. 회사가 안전보건관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리면서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만드는 그만의 리더십이었다. 효과는 서서히 드러났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강설문조사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이 대폭 낮아진 것. 2013년 51%에 달했던 것이 최근에는 30%대로 줄어들었다. 한 점장은 “직원들이 건강검진 결과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하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에 예외 두지 않고 지원에 힘 쏟아

백화점 특성상 실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의 다수는 각 매장에서 파견한 용역 사원이다. 건대스타시티점 역시 900여 명 중 롯데쇼핑 정직원은 50~60명에 불과하다. 협력업체의 비중이 그만큼 크고, 안전보건관리도 구분 지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점장은 이를 감안해 5개 협력사와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22년 A등급). 문화센터 이용 지원에도 용역사원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고, 미화 용역 근로자를 위해 청소 세제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꾀했다.

한 점장은 매년 롯데세이프티 안전컨설팅으로 위험성을 분석해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협력업체 2개사가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획득하는 데도 힘썼다. 협력업체 안전관리부문 우수자를 포상하고, 해당 업체에 심폐소생술, 심리상담 같은 교육 상담도 지원했다. 야간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과 피로도 측정 등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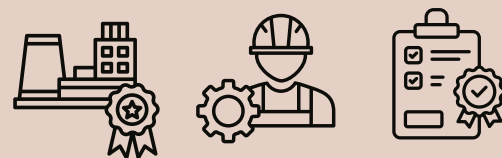
“아는 만큼 보인다...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도전할 것”

한 점장은 유통업 종사자가 이례적으로 큰 상을 받은 것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유통사들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동종 업계에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한 점장은 이번 수상과 관련, “난 시스템 활성화를 실행한 것뿐”이라며 “뜻을 함께하고 동참해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그의 다음 목표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따기다. 비전공자로 안전보건활동을 진두지휘하면서 느낀 아쉬움과 부족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제대로 알고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3 대통령 표창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 선진국



21 대기업 부럽지 않은 꼼꼼한 안전보건관리

(주)백학음료 장학영 대표이사

22 신념과 책임감 갖고 노력할 때 중대재해 막을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주) 공평15, 16지구 재개발신축현장 최철 책임매니저

23 “격동의 시대 맞은 산업안전...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겠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함병호 교수

24 “안전수칙 단순 암기는 그만...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업장 만들겠다”

(주)티에이치엔 채승훈 대표이사

25 산업안전 정책에 발맞추며 정부에 현장 목소리 전했다

삼성전기(주) 세종사업장 구명찬 프로

대기업 부럽지 않은 꼼꼼한 안전보건관리

“35년 직장생활 중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전 직원이 하나 돼 최선을 다한 결과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주)백학음료
장학영 대표이사

롯데칠성음료의 생수 브랜드 아이시스를 생산하는 백학음료는 정직원 80여 명,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100여 명인 작은 기업이다. 하지만 안전관리만큼은 큰 기업이라고 자부한다. 그만큼 안전경영 시스템 정착, 협력업체 지원, 노사 참여 안전보건활동 등 빈틈없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안전전담부서를 만들어 두 명을 고용하고 사업장 안전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 점도 백학음료의 자랑이다. 분기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살피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백학음료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개최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분기 별로 위원회를 열고 있다.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삼았기에 솔선 하는 것이다.

장학영 대표는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항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서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긴다. 그는 “우리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면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는 품질, 셋째는 효율적인 생산”이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경영진만 안전을 강조한다면 자칫 구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백학음료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방안들을 마련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안전제안 포상 제도이다. 백학음료에서는

근로자가 안전보건 관련 제안을 하면 상금을 지급한다. 건당 1만원이지만 우수하고 시도할 만하다고 평가받은 제안의 상금은 100만원이다. 한마음으로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협력업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백학음료의 협력업체 3개사와 함께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고(21, 22년) 지게차를 제공하는 협력사인 인건비를 지원해 안전관리인을 고용하게 했다. 지게차는 전자식 속도 제한의 신형으로 교체하고 시속 1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했다. 또 작업장에 인체감지센서를 설치토록 했다. 지게차 운행경로에 사람이 있으면 바로 알람이 울려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외부 업체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는 안전부서의 협조를 미리 얻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작업하기 전 상황에 맞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법규에 맞는지 확인한 뒤 공사를 승인한다. 공사 중에는 안전부서 담당자가 순회 점검을 한다.

장 대표는 “이번 수상은 35년 직장생활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갈 정도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백학음료 가족의 건강과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신념과 책임감 갖고 노력할 때 중대재해 막을 수 있다

대통령표창



● 현대엔지니어링(주)
공평15, 16지구 재개발신축현장
최철 책임매니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매우 감사하다. 근로자들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현장을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겠다.”

최철 책임매니저는 1997년부터 여러 기업에서 27여 년간 안전 관리자로 일해 온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베테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만 12년째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협력업체 안전을 위한 비용 지원,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건설 공법 도입 등 다양한 제안을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힘써 왔다. 최 책임매니저는 2018년 현대엔지니어링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는 데 기여했다. ISO 45001은 국제안전보건 인증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안전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들이 이행 사안들을 실천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ISO 45001을 올해까지 연장 운영 중이며 OHSAS 18001(구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간 존중과 배려의 현장’이라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현장에서는 비용 절감보다 ‘감성 안전’을 우선하고 있다. 최 책임매니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을 움직이는 안전관리를 할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접근을 그는 ‘감성 안전’이라고 소개했다.

최 매니저는 협력업체 지원관리에도 앞장섰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계약협력사에 안전관리비 50%를 미리 지급해 안전시설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현장의 화재감시자와 장비 유도원 인건비를 직접공사비로 지원한다. 과거엔 전체 공사비가 늘어남과 이를 꺼렸지만, 이제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안전평가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낸 협력사는 포상하는 것은 물론 우수업체로 등록되게 한다. 회사는 또 위험성이 높고 근골격계 부담이 큰 현장 작업에는 로봇장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책임매니저는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추락을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피트작업대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외벽 마감공사를 할 때 추락 예방을 위해 추가 작업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은 수용돼 현장에 적용된다.

최 매니저는 산재 예방의 핵심은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핵심안전’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작업 중 손쉽게 작업 중지나 개선 제안을 할 수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근로자 자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안전사고 집중 발생 시간대에는 관리감독자별 책임구역에서 앱을 이용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해 안전을 살핀다. 안전교육을 할 때는 근로자의 수강 성취도를 평가해 안전 의식을 높인다. 작업장에서 쓰는 건설기계 27종에 대해서는 본사와 현장 통합 데이터를 구축해 장비이력 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불량 장비 반입을 통제하고 장비 작업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하게 한다.

최 책임매니저는 “안전문화는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관련 투자는 당연한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격동의 시대 맞은 산업안전...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겠다”

대통령표창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함병호 교수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
산업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기여할 일을
찾아 더욱 노력하겠다.”

함병호 교수는 한국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태동과 발전을 직접 체험한 산증인이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인 함 교수는 고용노동부에 31년 재직하는 동안 대부분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맡았다. 1980년대 산업안전보건법 태동기와 1990년대의 발전기, 이어진 성숙기를 지켜봤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함 교수는 국립한국교통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과 관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함 교수는 일찌감치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에 주목했다. 1991년부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재·폭발·누출 사고 예방에 대한 외국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연구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그의 연구는 1995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도입하는 토대가 됐다. 이 제도 등을 근거로 울산·여수·대산 등 화학공장 밀집 지역에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또 산업안전 관련 제도는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 등에 대한 검사·검정 제도를 안전시스템 인증 제도로 개선한 것을 들 수 있다.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기술·재정·교육 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의 설계자다. 또 민간 안전보건 대행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기술을 지원할 때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및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가습기살균제 사건(1994-2011)을 계기로

절삭유 등에 벤젠 등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용도 제한 제도의 기초를 세웠다. 그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위험성 화학물질의 분류 및 관리 체계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편하고, 산업현장에서 취급하는 위험성 화학물질을 제조금지대상물질, 허가대상물질, 관리대상물질 등으로 각각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 밖에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유통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위험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활발한 대외활동으로도 산업안전 의식 확산을 도왔다. 함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화학사고예방 실무그룹(Expert Group on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사업에 적극 참여했으며, 2003~2009년에는 실무그룹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2022년부터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비상임 이사 자격으로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 교수는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격동의 시대로 가고 있다. 산업안전 시스템을 거의 새로 구축하는 시기”라며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산업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기여할 일을 찾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수칙 단순 암기는 그만...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업장 만들겠다”

“과분한 상을 받아 감사하고, 한편으로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 (주)티에이치엔
채승훈 대표이사

대구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기업 티에이치엔(THN)은 1986년 설립됐다. 주력 상품은 ‘자동차의 혈관’으로 불리는 와이어 하네스(Wire Harness). 자동차는 기름과 전기로 움직이는데, 와이어 하네스는 자동차에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이다. THN은 현대자동차에 와이어 하네스를 납품하고 있으며, 3년 전부터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 콘티넨탈과도 거래하고 있다. THN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파라과이, 브라질, 멕시코 등에 해외 공장을 둔 근로자 350여명의 건실한 중견업체다. THN은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다.

THN 채승훈 대표는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장의 산재 예방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한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 있는 사업장에도 한국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사업장은 한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에 있어 때로는 근무 상황이 한국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THN은 다르다. 채 대표가 품질과 안전보건 기준은 어디서나 동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채 대표는 “각국의 안전 관련 규정이 다르다고 기준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야비하다’”면서 “어디서나 동일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채 대표의 안전 경영 노력으로 THN에는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별도의 전담팀을 조직

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 2022~2023년엔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절차서를 개발했다. 또한 구성원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도록 반기마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THN의 안전관리 특징은 ‘관리감독자 전담 체계’이다. 이는 현장 관리감독자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THN의 안전 관리감독자는 매년 외부 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는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작업허가제’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산재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췄다. THN은 협력업체 안전관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연 1회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평가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협력사에 대한 방문지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채 대표는 “안전수칙을 그냥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전 왜 안전조치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전했다.

금융인 출신인 채 대표는 6년 전 THN에 합류했다. 그는 “계속 제조업에 있던 사람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상이 주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고, 스스로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다. 채 대표는 “회사 작업환경이 더욱 안전하도록 이전보다 더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산업안전 정책에 발맞추며 정부에 현장 목소리 전했다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해 온 회사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가
탄탄한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



● 삼성전기(주)
세종사업장
구명찬 프로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반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일종의 도로 역할을 하는 기판을 제작하는 현장이다. 그래서 외부 충격이나 오염, 습도로부터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성상 회사는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명찬 프로는 현장 곳곳을 발로 뛰는 11년 차 안전관리자다. 57명이 속한 사내 안전환경그룹 일원이자 허리 역할로, 사업장 안팎에서 다양한 안전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정부 산업안전 정책에 발맞추고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구 프로의 몫이다. 그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함께한 2022년 노사 상생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향 협의, 2021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현장 방문 및 제도 개선 협의에 참여했다. 또 대전 노동청과도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했다. 2023년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서 위험성평가 사례 교육을 하고, 2022년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기업에 선정되어 우수사례들을 공유했다.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생산 현장이니만큼 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선 협력사와 손발을 맞춰야 한다. 회사는 이를 위해 2023년 17개 업체, 24개 사업장의 임가공 협력사에 화재설비 안전을 위한 자체 및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 4개 항목, 연 1,000만원 포상 규모의 안전관리 시상 제도를 운영하면서 협력사도 대상에 포함해, 본사와 협력사가 ‘안전 운명 공동체’란 인식을 심었다.

구 프로는 임직원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Not to Do List)’ 운영,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참여, 안전문화 캠페인 진행 등을 주도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아이디어를 더해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그는 2023년 연기, 불꽃, 가스 누출 등을 감지하고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산 현장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회사는 지능형 CCTV 100대를 설치, 운영해 사고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 그는 고독성 및 고위험 물질 8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 관리 해법도 고안해냈다. 회사는 유해물질의 공급을 자동화 하거나 사용 농도를 낮추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장 내 중요한 재해 예방인 만큼 연도별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 프로는 이번 수상에 대해 “한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해 선정된 것으로 생각하며, 영광스럽다”면서 “삼성전기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힘쓴 부분이 성과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성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고,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가 탄탄한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고 안전관리자로서의 포부를 전했다.

4

국무총리 표창

꿈꿀 수 있는 터전
안전문화



27 근로자 참여형 시스템 주도...안전관리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다
HL만도(주) 원주공장 김흥선 상무보

28 IT 활용한 건설현장의 위험성 예측 통했다
삼성물산(주) 반포3지구 재건축현장 김도석 부장

29 현장에 답이 있다! 발품 팔아 근로 현장 목소리 들었다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송민숙 선임차장

30 “작지만 큰 기업! 과감하게 안전에 투자했다”
철한정화기업(주) 유형균 전무

31 안전의 선순환을 위한 첫걸음...소통하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롯데웰푸드 주식회사 조윤근 안전기획 매니저

32 보건관리 28년, 전국 공항 근로자의 건강을 지킨다!
한국공항공사 김경숙 과장

33 “안전하게 일하게 하는 것이 복지...위험 원천 차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최태은 팀장

근로자 참여형 시스템 주도...

안전관리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다

“시간의 축적으로 얻은 안전관리 성과다.
후배들에게 더 나은 시스템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뿌듯하다.”



● HL만도(주)
원주공장
김흥선 상무보

HL만도는 전기차,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으로 자동차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핵심 부품을 생산한다. HL만도 사업장 중 원주 공장은 직원 800여 명 규모로, 국내 매출의 35%를 담당한다.

김흥선 상무보는 이곳에서 특별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이끌어 왔다. 그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관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선 ‘안전보건 모델라인’을 도입, 제조 라인 100개 중 안전사고가 빈번한 3~4곳을 선정하고 해당 작업자들에게 직접 안전사고 요인과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했다. 그 결과 현장 작업자들은 그 누구보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에 현실적인 방안들이 속속 쏟아졌다. 회사는 이에 아낌없는 안전 투자로 화답했다. 2015년 도입한 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지금까지 34개 라인에 적용됐다. 회사는 이를 통해 크고 작은 과제 972건을 개선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정년을 앞둔 ‘선배’ 근로자에게 안전관리감독 역할을 맡겨 근로자 참여형 안전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는 실제 작업을 하기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배려하는 동시에 베테랑들의 권위를 살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신의 한 수였다. 이에 대해 김 상무보는 “참여형 안전관리는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 상무보는 안전관리 문화를 탄탄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마련해 실시했다. 2023년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노사정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

문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톡톡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또 ‘사내 안전 캠페인 실시’ ‘SBU Safety News 발행’ ‘안전보건 강조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 상무보는 산업재해 예방의 범위를 넓히면서 976건의 안전 보건 개선 투자를 이뤄내기도 했다. 그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전문 물리치료사의 치료를 받게 하고, 안전신문고 및 사내 전산망을 통해 안전을 위해 해야 할 과제를 받아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개선하는 등 전방위적인 예방대책을 꾸렸다.

30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김 상무보는 “안전 사고는 단순히 비용과 인력의 손해가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의 안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간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관리의 성과는 시간의 축적”임을 강조했다. 안전관리는 단순히 ‘잘해보자’로 어느 날 갑자기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번 수상에 대해 “오랜 세월 뜻을 함께해 온 선후배, 동료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 “후배들에게 더 나은 시스템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뿌듯하다”고 말했다.



IT 활용한 건설현장의 위험성 예측 통했다

국무총리표창



● 삼성물산(주)
반포3지구 재건축현장
김도석 부장

“사고 예방에 대한 동력을 얻었다.
타 건설사와 교류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싶다.”

28

서울 반포3지구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7개동 2,091가구 건설이 한창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 현장이다. 인구와 교통량이 밀집한 지역인 데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이뤄지다 보니 여느 건설현장보다 훨씬 더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김도석 부장은 1995년부터 삼성물산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며 건설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을 구현하고 있다. 그는 이런 노력의 결과 2023년 위험성평가 중심의 건설업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는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탐구심, 자기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그는 면담, 교육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 부장은 효율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정보기술(IT)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개인 휴대폰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매일 아침 15분간 위험성평가 내용을 기재하고 공유하도록 한 것. 그는 이를 통해 자유로운 문제 제기 등 양방향 소통이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실제 근로자가 위험을 느낄 때 행사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역시 QR코드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하루 평균 20~30건이 접수된다고 한다. 그는 “작업 중지권의 건전한 활용을 위해 우수 신청자에게는 우산이나 보조

배터리 등으로 간단한 포상도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 현장에 ‘위험성평가 룸’도 만들었다. 위험한 공정에 CCTV를 설치하고, 사고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조성한 것이다. 이 공간에서 현장감독, 안전팀장, 협력사 관계자 등이 모여 작업별 현장을 매일 평가하고 시정 사항 등을 협의한다.

김 부장은 “이 같은 위험성평가가 실효를 얻는 것은 순전히 현장 근로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매일 안전에 대한 회사의 기준을 고지하고, 사소한 사고도 공유하다 보면 지시와 잔소리로 여길 수 있는데, 작업자 대다수가 ‘내 안전을 도와주는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고맙다는 것이다. 그 역시 냉장고, 에어컨, 비데를 갖추는 등 근로자들에게 화답하며 ‘최선을 다해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협력사에도 안전보건 활동 참여 평가제를 운영한다. ‘소장 안전 아카데미’를 통해 협력사 관리자까지 안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마다 우수 관리자를 선정한다.

김 부장은 이번 수상을 두고 “지금까지 진심으로 해 온 노력에 근로자들이 주는 상이라 생각한다”며 “사고 예방에 대한 동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조건에서 일하는 타 건설사와도 교류하며 위험성평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해 보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현장에 답이 있다! 발품 팔아 근로 현장 목소리 들었다

국무총리표창



●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송민숙 선임차장

“21년 해 온 산업보건예방활동 중
가장 큰 영광이다. 지역본부에도
현장형 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싶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보건 관리를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비영리기관이다. 2001년부터 서울지역본부에서 건강진단 관리업무를 성실히 해 온 송민숙 선임차장은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으며 직업적 소명을 다해왔다. 송 선임차장은 건강진단 중에서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파트를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하면서 기관이나 업체에 속하지 않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쏟았다. 그는 작업 현장에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안타까웠다. 이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몰라 단순한 안전 사고 예방법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송 선임차장은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우선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여행사 직원 중 중국어 가능자를 채용토록 해 중화권 근로자와 소통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이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건설업 근로자가 많은 국가의 언어 특기자를 안전보건예방 채널로 활용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 뒤에도 소통 창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고 작은 이유로 협회를 찾는다”며 이 같은 일을 한 걸 보람으로 여긴다.

송 선임차장은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관련 지원을 하는 디딤돌 사업인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강진단도 담당했다. 2022~2023년 두 해에 걸쳐 이 혜택을 받은 이들은 7,657명이다.

그는 발품 파는 업무 방식을 한결같이 고수해 왔다. 별도 의사 소견이 없는 사업장도 직접 찾아가 실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직업병이 생기기 전 단계인 ‘C1’에서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서울의 경우 대형 공장보다 소규모 작업장이 대다수이고 소음성 난청이나 유해물질 노출이 많아 현장에서 원인과 그 정도, 관리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사와 동시에 그는 직업병 안심센터와 사전 예방활동에 비중을 두면서 정기 간담회를 열고, 직업성 질병 집중 검사 진료 연계체계 등을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현장에서 얻은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관리체계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았다. 그는 이외에도 폭염 대비 건강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송민숙 선임차장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건설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면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은 지금까지 21년 해 온 산업보건활동 중 가장 큰 영광”이라며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송 선임차장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서울지역본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한 지역본부에도 현장형 관리체계를 확대해보고 싶습니다.”

29



“작지만 큰 기업! 과감하게 안전에 투자했다”

“안전에 투자한 결과 직원들의
자긍심도 커졌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



● 철한정화기업(주)
유형균 전무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인 철한정화기업의 유형균 전무는 산재 예방에 과감하게 투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철한정화기업은 현장 직원 43명을 포함해 4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하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 의지와 투자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스마트웨어를 장비까지 지급했고, 뇌심혈관질환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사내 주치의 상담 제도로 운영 중이다.

선도적으로 안전보건에 힘을 쏟게 된 배경에 대해 유 전무는 “아직 우리 사회에는 청소 업무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이에 개의치 않고 신명나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전에 늘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실제 철한정화기업은 이미 2019년부터 추진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5개년 계획’에 기반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진행해 작업환경을 개선했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및 위험성평가 인정을 획득했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운행·작업 일지도 개선했다. 외부와의 공조도 빼놓을 수 없다. 동종 업체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회의를 열어 안전 관련 사항들을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과 보건 프로그램(우리 회사 주치의, 허리

소프트웨어러블)을 지원하기도 했다. 안전관리는 노사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도 조성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언제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했다. 모두가 위험 요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관리는 나의 일’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켰다. 또 3·3·3 안전 캠페인, 무사고 캠페인을 펼쳐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유 전무는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 혁신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처벌이라는 단어 때문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더 안전을 챙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그는 한여름을 앞두고 더 철저하게 안전 의식을 다지고 있다. 그는 “기후 위기 때문에 더 덥고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밖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유 전무는 “안전에 투자한 결과 직원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일터에 대한 자긍심도 커졌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전의 선순환을 위한 첫걸음... 소통하는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제 경험과 노하우를 잘 전수해 후배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 롯데웰푸드 주식회사
조윤근 안전기획 매니저

2021년 제과업계 최초로 ISO 45001 인증을 취득한 롯데웰푸드는 일찌감치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했다. 5개년 안전보건 로드맵을 세우는 등 시스템도 차근차근 구축했다. 사고 다발 유형 단기 개선 TF를 운영해 넘어짐 사고 발생을 대폭 감소시키기도 했다. 이미 안전보건관리의 모범 사례였던 롯데웰푸드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그 중심엔 조윤근 안전기획 매니저가 있다.

1996년 입사해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해 온 조 매니저는 약 3년 전부터 안전 업무를 전담했다. 그가 최우선에 둔 건 ‘현장’이다. 현장과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직접 소통하려면 어떤 규모의 인력·조직·예산이 필요할까 고민했다. 그 결과 면밀한 분석을 거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10개 신설하고, 안전경영 실천을 위한 인력도 15명 증원할 수 있었다. 인력은 전년 대비 71%나 증가했다. 예산도 늘렸다. 지난해 집행한 안전예산 206억 2,000만원은 전년(189억 3,000만원)보다 8.9% 늘어난 액수다. 위험성평가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했다. 위험성평가 사내 컨설턴트 16명을 신규 양성하고, ‘위.험.성.평.가’로 5행시 공모전을 실시했다. 잠재위험 발굴 제도도 도입해 우수 개선 사례 1,294건을 선정했다. 롯데웰푸드의 안전보건 활동은 회사 안

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서울지방고용청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외부기관과 공조했다. 제품 포장과 영업 배송차량에 안전 슬로건을 표시해 전 국민이 안전의식을 갖도록 도왔다. 롯데웰푸드는 배송차량 운행과 마트의 제품 포장을 통해 약 4,000만명의 국민이 안전 슬로건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롯데웰푸드는 동종 업계에서 가장 앞선 안전 보건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 됐다. 조 매니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연계시켜 끊임없이 개선하는 안전의 선순환 구조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동참해 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확대 구축을 승인해주신 이영구 부회장님, 이창엽 대표님, 박희철 상무님 등 경영진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조 안전기획 매니저는 안전업무 담당 후배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 경험을 후배들에게 잘 전수해서 안전관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보건관리 28년, 전국 공항 근로자의 건강을 지킨다!

국무총리표창



● 한국항공공사
김경숙 과장

“전국 공항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전파하고
다 함께 실천해 뿌듯하다.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제 역할을 다하겠다.”

32

1996년 한국항공공사에 김경숙 과장이 입사했을 때 회사 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했다. “간호사가 왜 입사했지?” “건강검진이나 하고, 상담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었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은 누구도 직장 내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국항공공사에서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김경숙 과장은 보건 위생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김 과장이 관리하는 현장은 방대하다. 모든 공항은 물론, 본사와 17개 지사, 3개 자회사를 포함한다. 김 과장은 산업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틀을 짜고, 그 지침이 현장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김 과장은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뇌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친구교실, 대사증후군 검진 교육, 허리둘레 5% 줄이기, 만보걷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헬스프로그램 ‘바디챌린지’를 운영했다. 야간 교대근무자와 고객 응대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 돌보기에도 힘을 썼다. 이런 노력 덕에 지난해 한국항공공사는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재선정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높은 점수를 얻어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에 체계적인 산업보건관리시스템도 이식했다. 각 공항 맞춤형 안전보건관리 평가지표 개발을 통해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했다. 또 우수사업장 포상, 내부 경영평가 시 실적을 반영하는 인센티브 도입에 힘썼다.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펼쳤다. 안전경영 방침 포스터를 전국 공항에 배포했고, ‘스몸비’ 등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포스터·스티커·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게시했다. 필수 안전보건수칙과 체크리스트, 사고처리 절차 등이 수록된 안전보건 포켓북도 만들어 배포했다.

김 과장은 “공항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있어도 사업장별로 제각각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공동된 지침을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사 직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적어 어렵게 일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불모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인정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무총리표창



“안전하게 일하게 하는 것이 복지... 위험 원천 차단했다”

“항공산업이 날아오르는 만큼 안전도
발전시키겠다. 다 같이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최태은 팀장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안전·산업안전·보건관리·환경관리 등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승격시킨 안전실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를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방증이다.

안전실의 최태은 팀장은 이러한 기업 경영 이념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다. 안전 업무를 도맡으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고, 협력업체에도 안전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과업을 정해 꼼꼼하게 수행했다.

먼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했다. 중대재해 우려가 있는 공정을 분석해 8개 공정, 25개 작업장에서 개선작업에 나섰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실시한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선 412건을 개선했다. 새로운 법규에 맞게 기준을 강화한 37개의 자체 안전 작업지침서를 마련하고, 10대 안전철칙도 수립해 시행했다.

매월 고압가스 시설과 폭발물·화학물질 등을 점검해 지난해에만 120건을 개선했다. 근골격계질환 고위험 공정도 특별히 관리했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하는 공정 때문에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업하며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또 안전회보를 매달 발행하고, 공모전과 전문가 강연, 안전우수

공적자 포상 등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업체가 위험성평가 인정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 인정 획득률 86%를 달성하기도 했다.

최 팀장은 위험의 싹을 완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체 검증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중대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항공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경성국립대학교와 산학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항공산업 분야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최 팀장은 “결코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제게 대표로 상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함께 노력해 준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하게 일하게 하는 것이 복지”라며 “항공산업이 날아오르는 만큼 안전도 발전시켜서 다 같이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33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연번	소속	직급	성명
1	삼성물산(주) 기흥캠퍼스 개, 보수 공사	현장소장	이병훈
2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	지사장	안제섭
3	하나미이크론(주)	전무(경영지원팀장)	김정제
4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본부장(1직급)	전시식
5	CJ제일제당(주) 인천1공장	공장장	윤태우
6	(주)에어퍼스트	대표이사	양한용
7	창용아이앤씨(주)	대표이사	황병섭
8	오비맥주(주) 광주공장	공장장(상무)	양우천
9	현대모비스(주) 서산주행시험장	책임매니저(팀장)	조상희
10	한화시스템(주)	대표이사	어성철
11	현대건설(주) 부산 가야동 공동주택 1,2차 현장	현장소장	최종호
12	삼성E&A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 EPCV 현장	현장소장(PM)	김정재
13	(주)피피이씨춘천	공장장	고명호
14	장풍물류렌트카(주) PNC R/S,ECH	대표이사	배기욱
15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김재성
16	신우개발(주)	전무이사(실장)	이정열
17	에스케이 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공장장(부사장)	박진용
18	롯데건설(주) 강릉 교동 7공원 공동주택 개발사업	수석(현장소장)	최성욱
19	대상에스티(주)	대표이사	엄상용
20	(주)현대미포조선	상무	이창준
21	현대건설(주)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4차	안전관리자(책임매니저)	유남희
22	(주)대우건설 수원망포 A1블럭 공동주택 및 망포복합체육센터 신축공사	부장	정명훈
23	해림건설(주) 춘천 학곡지구 A-2블럭 공사	안전관리자(부장)	박장호
24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	책임	안상욱
25	GS건설(주) LG사이언스파크DP2 공사	안전관리팀장(책임)	전중배
26	한국남부발전(주)	부장	김인범

연번	소속	직급	성명
27	엘지전자(주) 창원1공장	책임	강지현
28	삼성물산(주)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공사	팀장	김기성
29	현대엔지니어링(주)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공사	책임매니저	김상진
30	한국서부발전(주) 평택발전본부	부장	이창덕
31	(주)신영	책임	강승원
32	삼성전자(주) 광주	상무	정혁준
33	DL건설(주) 고속국도 20호선 새만금 전주 6공구	부장	차주현
34	지에스건설(주) 보령 LNG터미널 Project(2-3단계) 공사	책임(안전팀장)	김정철
35	삼양식품(주)	안전환경팀장	안창근
36	(주)포스코이앤씨공사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EPC건설공사(침식저감)	안전관리자(차장)	오준택
37	신동아건설(주)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안전관리자(부장)	한경수
38	(주)이마트	부장	안정훈
39	(주)대우건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현장	차장	권용희
40	삼구건설(주) 득량삼구트리니티 신축공사	차장	김재영
41	(주)포스코MC머티리얼즈	그룹장	류순열
42	지에스건설(주) 운정3지구 A19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안전관리자(책임)	김한돌
43	(주)한화 건설부문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	과장	신강균
44	롯데지알에스(주)	책임매니저	김인영
45	경남기업(주) 영산강 4지구 2-3공구 토목공사현장	과장	박춘길
46	한화토탈에너지스	기감(안전환경)	윤병서
47	씨제이제일제당(주) 영등포공장	팀장	장용석
48	(주)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차장(안전색션장)	최종윤
49	현대IMC	실장(책임매니저)	김수섭
50	롯데건설(주) 구미 국가산업 5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책임	박선규
51	미가방유한회사	부장	장기운
52	대원전기(주)	부장	고길진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연번	소속	직급	성명
53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빛드림본부	프로	장이랑
54	대선주조(주) 기장공장	환경보건안전팀장	최근호
55	GS건설(주)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안전팀장	이영길
56	지엠비코리아(주)	파트장	오기열
57	이수건설(주) P3L-CO2 PROJECT(450TPD) 울산3공장	부장(안전관리자)	백은성
58	롯데칠성음료 충주2공장	책임(안전관리자)	윤명영
59	삼원산업(주)	생산팀장	양일동
6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주사	권상면
61	SK에코플랜트(주) 중화 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안전보건팀장	홍석하
62	롯데건설(주)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안전관리자	정재학
63	노벨리스코리아	수석기사	이동렬
64	대보건설(주)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조성공사	차장	이기봉
65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보은사업장	부장(팀장)	고상섬
66	(재)FITI 시험 연구소	선임(안전관리자)	박상은
67	에스엘(주) 진량공장	책임(팀장)	최정렬
68	(주)카펙발레오	책임매니저	은창락
69	한국전력기술(주)	산업안전팀장	김주섭
70	동부건설(주) 군산 새만금신항 접안시설(1단계) 축조공사	과장(안전관리자)	강태호
71	(주)화승알앤에이	책임	김용신
72	경창산업(주)	파트장(책임매니저)	남영근
73	삼한건설안전(주)	대표이사	김종완
74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	차장	박용배
75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	부장	우인식
76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창원지회	국장	서성우
77	(사)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부장	박영미
78	(사)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	국장	김도형

연번	소속	직급	성명
79	(주)한국안전컨설팅	이사	최재원
80	(사)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	선임차장	유필식
81	(주)인건설안전	대표이사	마송춘
82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지사장	심미경
83	(사)안전보건진흥원 천안아산지사	지사장	김계관
84	(사)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환경위생팀장	박진환
85	(주)한국안전보건연구소	대표이사	양홍석
8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디지털전략실	부장	박동언
87	(주)한국안전기술지원단	부장	전재형
88	(주)한국건설안전지도원	부장	최승훈
8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센터장	김현옥
90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충북보건안전센터	국장	손서연



발행일

- 2024년 7월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Tel 052.703.0725

편집디자인

- 필드가이드
Tel 02.6375.2665

이 교재는 안전보건공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 편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다른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금하며, 자료 내용은 안전관리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참고자료로 업무상 이의제기 등 소명자료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